새벽종소리 명성교회 9월 구역성경공부 교재

제목: 거룩한 관계를 방해하는 싸움과 다툼
(본문: 야고보서 4:1-10)

교회공동체 안에 있는 불편한 현실, 다툼과 싸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싸움과 다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공동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 ( )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 )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 때는 모두가 성령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공동체는 성도들간의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은 필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눔1)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이나 싸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자들을 향해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말합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간음한 여인들을 말하기보다 교인들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서 경각심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가장 잘 지켜야할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마음, 믿음을 잘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마치 간음한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간음한 여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경각심을 깨우치게 함으로 우리가 지켜야할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눔2)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행한 일들은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파악하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적지 않은 다툼이나 싸움의 원인을 정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욕은 “헤네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육체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죄된 본성에 의거한 지독한 자기사랑, 그것이 바로 “헤네도”, ‘정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내 삶을 뒤흔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내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로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가?
둘째로 지금 내가 하는 싸움이나 다툼을 통해 나는 어떤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반드시 기억해야할 기도응답의 원리

"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 )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2-3) "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싸움과 다툼의 삶에는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다툼과 싸움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낙타무릎이라 불릴 정도로 기도의 사도로 인정받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기도응답은 무엇보다 기도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자기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차서 남을 미워하고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다면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나눔3) 여러분이 어떤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보십시오.

더욱더 큰 은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라

"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 )할지어다 마귀를 (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4:6-7)

주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을 마귀가 피하기 때문입니다.

나눔2)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복종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경건의 삶을 습관화하십시오.

"하나님을 ( ).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약 4:8)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매사에 말씀묵상이나 기도생활과 같은 경건의 삶의 습관화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만한 다툼이나 싸움은 피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높이신다 생각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며 주께서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눔3)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외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 봅시다.

■ 기도제목

1.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다툼과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2.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